



‘2026 고창군 민속경기대회’ 성황리

고창군이 지난 3일 고창군립체육관에서 ‘2026 고창군 민속경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고창군체육회와 고창군민속경기협회가 주최·주관했으며, 읍·면 선수단 600여명이 참가해 제기차기, 고리걸기, 투호 등 우리 고유의 전통 민속경기를 통해 기량을 겨루며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대회는 세대를 이어온 전통 민속경기를 함께 즐기며 생활체육의 가치를 되새기고, 읍·면 간 친목과 소통을 한층 더 깊게 하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경기 내내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건강한 경쟁 속에서 웃음과 활력이 넘치는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다. 또한 전통 민속경기를 매개로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의미를 더하며, 군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생활체육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 보절면, ‘내마음 살피보기’ 사업 시행

남원시 보절면 행정복지센터(면장 김대기)는 1일 1가구 방문을 통해 ‘내마음 살피보기’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보절면 맞춤형 복지팀·보건소 치매관리팀·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 검진과 상담 및 건강교육을 함께 진행하며, 치매선별검사와 우울증 및 스트레스 뇌파검사 등을 통해 주민 개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주민들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치료 및 관리프로그램을 연계·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치매 및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 △의료·복지서비스 연계 △정신 건강상담 지원 △정기적인 건강 모니터링·상담 제공 △고위험군 대상자에 대한 전문가 연계 등 전인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황산면 지사협, 2026년 정기회의 개최

김제시 황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준식)가 2층 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관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2026년도 사업비 수입 및 집행내역 보고를 시작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해촉, 2026년 4차 지역특화사업 추진방법 논의, 안부확인물품지원사업 추진 등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 안건들이 결정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국 낚시인들, 부안에 모였다

부안컵 격포바다 민어 선상낚시대회 성료

전국 낚시인들의 대축제인 ‘제10회 부안컵 격포바다 민어 선상낚시대회’가 지난 3일 부안군 격포항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해양레저 중심지인 부안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어족자원을 활용해 ‘스포츠피싱’ 활성화와 지역 관광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440여명의 낚시 동호인들이 한데 모여, 부안 격포 앞바다에서 뜨거운 대결을 펼쳤다. 이른 새벽 4시 출항일에 오른 참가자들은 오후 1시까지 치열한 낚시 레이스를 이어갔으며, 민어 최대어 길이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됐다. 대망의 1등은 97.5cm 민어를 낚아 올린 서윤철 참가자에게 돌아갔으며 상금 500만원을 거머쥐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날 대회에는 개그맨 송병철 방송인 김하영이



함께 출전해 특유의 재치 넘치는 입담과 유쾌한 팬 서비스로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시상식에서 “부안은 해양레저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천혜를 품은 곳으로, 이번 대회로 부안이 국내 스포츠피싱과 해양레저 관광 문화를 선도하는 중심 허브로 우뚝 서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시로 생성된 이미지. (사진=남원소방서 제공)

남원소방서 “고령자 전동차 안전 주의해야”

남원소방서(구급팀장 최승범)는 70세 이상 고령자를 중심으로 전동차 관련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남원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전동차 이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으며, 실제로 남원소방서 관내 119구급대 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에는 전동차 관련 사고가 5건 발생했으며, 2026년 상반기에도 이미 4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고 유형은 전동차 운행 중 균형 상실로 인한 낙상, 도로 경계석 충돌, 좁은 보행로에서의 보행자와의 접촉 등으로 확인. 특히 고령자는 신체 반응 속도가 느리고 작은 충격에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승범 구급팀장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배려하는 안전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초기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만큼 사고 발생시 11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장애인종합복지관, 평생학습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 지난 1일 정읍시평생학습관에서 상점주와 평생학습 강사를 비롯해 장애인 시설 실무자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시 조성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장애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대상자별 맞춤형으로 열렸다. 송인애 한국장애인심리지원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소통배움가게 상점주와 평생학습 강사에게 평생학습 현장에서의 장애 인식 개선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참석자들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감수성을 키우며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익혔다. 오후에는 장애인 시설과 단체 실무자를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 최신 경향(트렌드) 알기와 프로그램 기획하기 강연이 이어졌다. 변화하는 정책 흐름을 짚어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획부터 운영 방안까지 폭넓게 공유하는 시간을 보냈다. 교육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기획 방법을 배워 매우 유익했다”며 “앞으로도 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꾸준히 열릴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복지관 관계자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려면 관계자들의 전문성과 장애 감수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역량 강화 교육을 거



쳐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늘리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복지관은 이번 교육에 이어 오는 8월부터 9월까지 실무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심화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안산시 상록장애인복지관의 우수 사례인 ‘오소가게’ 운영 방식 공유를 시작으로 지역 상생형 평생학습 체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등 다채로운 현장 지원을 이어간다. /정읍=김대환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남원소방서, 노후아파트 연기감지기 무상 설치

남원소방서 예방안전팀은 지난 3일, 남원 동봉아파트에서 화재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위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설치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노후 아파트 단지 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세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1989년에 준공된 360세대 중 취약계층 80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소방공무원 4명과 의용소방대원 12명 등 총 16명이 직접 각 세대를 방문해 감지기를 설치했다. 이날 행사는 야외에서 사업 설명과 연기감지기 작동 시연을 진행한 후, 각 세대에 감지기를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구성됐다. 이번 동봉아파트 설치 행사는 남원소방서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추진 중인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설치 사업’의 일환으로, 총 2억 9천만 원(국비 80%, 도비 20%)의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은 관내 아동, 노인, 장애인 거주 12,063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3개의 연기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권북 가00016

2026년 11월 20주 등(2기)
(19)60392 전주시 온수구 7 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36-4113	중앙지사 010-938-6874	남원지사 632-3886	임실지사 010-932-2725
심천지사 010-2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4227	진안지사 433-3064
서산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2404	남원지사 632-0886	정읍지사 556-5787
호산지사 010-665-9855	팔복지사 233-6844	순창지사 653-0444	정수지사 010-332-8157
	군산지사 010-823-6577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4172-3800
	익산지사 659-9923	고창지사 653-6889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